

# UNIX 및 실습 중간고사

※ 명령 입력 화면과 결과 화면을 모두 캡처하여 파일(20120123\_홍길동.pdf) 작성하고 메일 (kgu@mmu.ac.kr)로 제출. (메일 제목 : UNIX1 중간고사)

1. cara.mmu.ac.kr 에 U1\_MID 디렉토리 생성하기
2. U1\_MID로 이동 후 현재 디렉토리 화면에 출력하기
3. test1, test2, test3, test4 디렉토리 생성하기
4. test1 디렉토리로 /etc 아래 있는 모든 파일(디렉토리 포함) 복사하기
5. test2 디렉토리로 /usr/include에 있는 \*.h 파일 복사하기
6. test2 디렉토리에서 내용 중 'Windows' 단어가 있는 파일들을 찾아 이름들을 화면에 보이시오.
7. test2 디렉토리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 test5를 U1\_MID에 만들기
8. test1/passwd의 마지막 10줄로 test5/my\_message.txt 파일 만들기
9. /usr/include 에 있는 \*.h 중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파일들만 test3 디렉토리로 복사하기
10. test3에 있는 파일들 중 크기가 512보다 작은 파일들의 수 출력하기
11. test4 디렉토리 안에 다음 내용의 파일 news1 작성하기

아이폰5의 스펙과 출시일 얘기가 끊이질 않는다.  
아이폰5는 갤럭시3의 경쟁모델로 언급되며 출시일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루머에 휩싸여있다.  
이중에서도 아이폰5의 의미 있는 루머 몇 가지를 언급해보자.

아이폰5는 일단 스펙과 출시일에서 갤럭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아이폰5의 출시일에 스마트폰 판도가 뒤바뀌기 때문이다.  
갤럭시3가 사실 시장 분위기를 지배하는 가운데 아이폰5는 침묵 중 뉴아이패드를 출시했을 뿐이다.  
아이폰5보다도 못한 새로운 패드에 대한 관심은 아이폰5에게 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3G와 LTE 중 어떤 통신망으로 아이폰5가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 아이폰5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비단 고객들만은 아니다.  
아이폰5는 일단 새로운 패드로 비춰보건대 3G로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아이폰5의 LTE 역시 주파수가 말썹일거란 전망이다.

영국런던 공개를 앞둔 갤럭시3의 승승장구 앞에 아이폰5를 기다리는 애플 유저들은 애간장이 타고 있다.

12. news1의 내용 중 '아이폰5'를 'iPhone 5'로 수정한 파일 news2 생성하기
13. news1의 내용 중 '갤3'을 '갤럭시 3'으로 수정한 파일 news3 생성하기
14. news1, news2, news3을 덧붙인 파일 U1\_MID/ex14.out 생성하기
15. U1\_MID/ex14.out 파일에 행(line) 번호를 붙인 파일 U1\_MID/ex15.out 생성하기
16. U1\_MID 아래 모든 파일의 속성을 0644로 수정하기
17. U1\_MID 아래 모든 파일의 속성을 자세히 출력한 결과를 U1\_MID/ex17.out에 저장하기
18. 지금 작업 중인 사용자 수를 출력하고, 사용자들의 login id를 U1\_MID/ex18.out에 저장하기
19. du 명령으로 U1\_MID 아래 모든 디렉토리 크기 출력한 결과를 U1\_MID/ex19.out에 저장하고, test1, test2 디렉토리 삭제하기
20. 현재시간을 출력한 결과를 U1\_MID/ex20.out에 저장하기